

건설화학, 목재용 수용성 도료 개발

물로 희석해 도장 가능한 KCI 아쿠아우드 공급 ... 이태리 Ilba와 제휴

제비표 브랜드의 건설화학(대표 황성호)은 물로 희석해 도장할 수 있는 목재용 수용성 도료 <KCI 아쿠아우드>를 개발했다고 3월15일 밝혔다.

이태리 일바(Ilba)와 기술제휴로 개발된 수용성 도료는 기존 용제형 락카와 우레탄 도료에서 발생하는 독한 냄새와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킨 것이 특징이다.

또 도장 후 용제형 락카에 비해 건조시간이 단축되고 목재의 내구성이 증가하여 작업효율과 소비자의 만족을 동시에 높였다.

건설화학 관계자는 “최근 여가생활 증가와 웰빙 바람으로 목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신제품은 일반인들이 자가작업(DIY)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05/03/17>